

HUBLOT



SANG BLEU

**SPIRIT OF BIG BANG
SANG BLEU**

Sapphire case. Self-winding
chronograph movement.
Limited to 100 pieces.

Style

조선일보

SUMMER
2024



HUBLOT



Art of Fusion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낸 워치 브랜드 위블로(Hublot).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워치메이킹에 대한 열정과 혁신, 그리고 창의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융합의 예술이라 부르기로 했다.

1980년은 위블로가 탄생한 해다. 창립자 카를로 크로코(Carlo Crocco)는 이탈리아에서 시계 및 보석 기업을 운영하던 집안에 태어난 워치메이커이며, 스위스로 터전을 옮겨 시계 제작 회사 위블로를 만들었다. 1백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적 워치메이커들 사이에서 이제 막 40년이 지난 위블로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특별한 노하우 덕분이었다. 그것은 타 브랜드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소재를 시계에 적용하는 끊임 없는 도전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브랜드 탄생과 함께 선보인 첫 번째 시계 케이스 디자인은 배의 현장에서 영감받았다. 여기에 위블로는 당시 최고의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골드와 리버를 결합한 최초의 명품 시계를 제작한다. 이전에 다른 브랜드들에서 했던 것을 발판 삼아 나아간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시계 시장에서 또 다른 혁신으로 새로운 지평을 넓힌 것. 이후에도 이전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잘 쓰지 않던 리버 소재를 티타늄이나 골드 소재와 함께 스트랩에 적극 활용해 시계 소재의 범위를 넓혔으며, 금과 세라믹을 결합해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는 매직 골드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는 타 브랜드들에서 워치 소재에 변화를 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로써 위블로는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현대의 연구술사로 군림하게 되었다. 위블로는 이를 'Art of Fusion(융합의 예술)'이라 명명했다. 이 키 프레임은 지금까지도 위블로의 아이덴티티이자 사명으로 신제품 개발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브랜드의 혁신성과 콘셉트를 확고히 한 위블로는 2004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시계업계에서 마케팅 천재라 불리던 장-클로드 비버(Jean-Claude Biver)를 CEO로 영입한 것. 당시 장-클로드 비버는 태생부터 혁신성을 지닌 브랜드 위블로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마케팅 전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남들과 다른 것을 시도하겠다고 공표한 것. 그는 취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5년에 빅뱅 컬렉션의 첫 번째 모델인 빅뱅 골드 세라믹을 성공적으로 출시한다. 날카로운 각도와 케이스 주위에 배열한 6개의 나사, 양쪽에 있는 베젤 러그 등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마치 미래의 시계 같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뿐 아니라 빅뱅은 위블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시계로 자리 잡았다. 이후 위블로는 스피릿 오브 빅뱅, 클래식 퓨전, 스쿼어 뱅, MP 등 5개의 컬렉션으로 라인업을 완성한다.

워치메이킹 기술의 집약체, 매뉴팩처

위블로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하이엔드 워치 제작 공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위블로는 라 코트(La Côte) 포도원 사이 제네바와 로잔 중간에 있는 제네바 호수 기슭에 작지만 매력적인 마을인 니옹(Nyon)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08년 럭셔리 제품 분야의 세계적 선두 주자인 LVMH 그룹이 브랜드를 인수하고 1년 후 위블로는 모든 활동을 재편성했다. 이전 두 곳에 분산되어 있던 가공, 조립 및 복합 작업장과 관리 및 연

구 개발 부서를 6개 층에 걸쳐 6,000㎡ 면적에 통일한 것. 이는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 브랜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공정상의 집적화로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는 하이엔드 위치를 생산하는 데 매우 큰 메리트가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과 유니코 무브먼트의 주된 연구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이얼 측면에 칼럼 휠을 통합한 크로노그래프 역시 위블로의 이 매뉴팩처에서 전적으로 설계·개발·제조되었다. 6년 후 위블로는 매뉴팩처 면적에 한계를 느끼고 또 하나의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Formula 1)™ 그랑프리 의 서킷과 유사한 통로를 만들어 두 건물을 연결했다. 새 건물의 면적은 8,000㎡로 총 면적은 14,000㎡에 달하며, 1백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 새로운 건물에서는 주로 매뉴팩처 무브먼트용 부품 생산과 시계 케이스 생산을 전담하고 석재 세팅, 장식, 전기도금 및 표면 마감 부서도 갖추었다. 첫 번째 건물에는 현재 관리 사무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부서, 무브먼트 조립, 케이스업, 핸드 및 팔찌 피팅,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숍, 품질 관리 및 연구 개발 부서가 위치한다. 매뉴팩처는 위블로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인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와 스쿠터를 최적으로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와 재생 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장

착했으며, 지역 수분을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11개의 벌집을 들여놓았다. 재미있는 것은 이 벌집에 관한 이야기다. 농업과 농촌의 풍경은 꿀벌에게 수많은 채집 자원을 제공한다. 매년 위블로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봄 작물을 수확하고, 7월 말에는 여름 작물을 수확한다. 꿀은 크고 가벼운 나무 상자에 포장되어 위블로의 연말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고객, 브랜드의 프렌즈 및 프레스에 제공된다. 위블로는 또한 직원과 제조업체에 위치한 크레슈(보육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꿀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벌통과 꿀 수확을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에 등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주요 환경문제에 대해 직원과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있다.

스타가 사랑하는 시계

위블로가 타 브랜드들에 비해 시장에 늦게 진입했음에도 빠르게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럭셔리 스포츠와 스포츠 스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스타 마케팅 전략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승마와 폴로 경기를 즐기는 유럽 로열 패밀리들이 위블로가 등장하자마자 즐겨 착용했으며, 이로써 '왕들의 시계'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페인 국왕은 그리스 국왕에게 선물로 줄 시계 중 위블로를 선택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스웨덴 국왕 카를 구스타프(Karl Gustav)는 비공식 행사인 승마 경기는 물론 공식 행사인 노벨상 시상식에서도 위블로 시계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에도 위블로의 스포츠 사랑은 계속되었다. 2006년 위블로는 스위스 축구 팀 후원사로 지정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UEFA 유로 2008™의 공식 시계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2010년 FIFA 월드컵™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되었고, 2014 브라질에서 개최된 FIFA 월드컵™과 2018년 러시아 FIFA 월드컵™에서도 공식 타임키퍼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 및 유로파 리그, 2021년에는 유럽 내 UEFA 유로 공식 시계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카타르 FIFA 월드컵™ 및 2024년 독일에서 열린 UEFA 유로 2024™ 공식 시계로 임명되는 등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 지지를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종 스포츠 스타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협업하며 럭셔리 워치로서 '위블로'라는 브랜드를 끊임없이 각인시켰다. 축구뿐 아니라 골프, 레이싱 같은 모터 스포츠에도 지원과 협업을 아끼지 않는다. 위블로 골프컵(Hublot Golf Cup)을 통해 2016년 US 오픈, 2016년 US 오픈을 포함해 17회 이상의 프로 우승을 차지한 Dustin Johnson)과의 명망 높은 파트너십 덕분에 골프계와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와 함께 빅뱅 유니코 골프(Big Bang Unico Golf)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골프 전용으로 새로운 무브먼트를 갖춘 워치로 골퍼가 플레이하면서 점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2010년에는 포뮬러 1™의 공식 워치로 선정되어 페라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페라리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독점 파트너인 위블로는 페라리와 페라리 쉐넬지의 공식 타임키퍼이자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공식 시계일 뿐 아니라 페라리 특별 이벤트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수년에 걸쳐 위블로가 스포츠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2020년까지 모든 이벤트의 공식 시간 기록원으로 ICC(국제크리켓협회)와 연계한 최초의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스키, 테니스, 육상 경기, 야구, 미식축구, 권투 등 각종 스포츠업계 챔피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스포츠 워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집중하지 않은 대중적인 스포츠에 투자하면서 위블로라는 생소한 브랜드를 더욱 빠르게 알리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1 위블로의 매뉴팩처 및 사무소, 2 위블로가 지원하는 스포츠, 사파이어, 3 위블로의 특가 자사 시계점이 된 리버 소재, 4 위블로 워치의 칼럼 휠을 잘 드러내는 칼라 세라믹, 5 위블로에서 처음 개발한, 스크래치에 강한 매직 골드.

소재의 연구술사

앞서 소개한 매뉴팩처에서 모든 공정을 통일한 덕분에 위블로는 다양한 소재를 마음껏 연구하고 실험해 탄생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기존 귀금속 합금을 그냥 쓰지 않고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써서 획기적인 복합 재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소재에 대한 창의성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블로는 모든 부속품을 내부에서 생산하며 자체적으로 위블로늄(Hublonium,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혼합물)을 개발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 재료인 매직 골드(Magic Gold)는 201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스크래치에 강한 18K 골드다. 에콜 폴리테크니크 페데랄 드 로잔(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매직 골드는 스크래치에 약한 금의 약점을 보완한 뛰어난 소재다. 그런 만큼 스크래치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들에게 완전한 메리트도 다가갈 위치임에 틀림없다. 이 독특한 소재는 복잡한 제조 과정에서 붕소산화물과 24K 골드가 매직 골드로 융합되며 내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독특한 황금 색조를 띠게 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위블로 매뉴팩처에 설치된 하이테크 주조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다음으로 위블로가 잘 사용하는 독특한 재료는 탄성 고무, 즉 리버(rubber)다. 위블로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연하지만 내구성이 뛰어나며 방수까지 가능한 이 강력한 소재를 고급 시계에 매치한다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위블로는 이 리버로 자신들만의 스트랩을 만들어냈고 이는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리버는 위블로의 유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재료 중 하나다. 특히 위블로 리버는 천연과 인공 리버를 융합해 부드럽고 방수가 가능하며, 내마모성이 뛰어난 리버의 특성을 십분 살렸다. 또 엄격한 기술은 물론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성능을 확보했다.

사파이어 역시 위블로가 첫 번째로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소재다. 매우 단단하며 투명하고 광채를 발하는 사파이어는 매력적인 소재지만, 그 단단함 때문에 가공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위블로는 이런 사파이어를 잘 연마해 결결 없이 고른 색상을 지닌 투명하고 큰 사파이어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결국 위블로의 기술자와 화학자는 독특한 미적 특징을 지닌 합성 사파이어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위블로는 실험실에서 독자적 절차를 통해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은 물론 분홍색까지, 새로운 색상의 합성 사파이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블로가 사랑하는 대표 소재 중 하나인 세라믹이 있다. 위블로에서는 디자인의 핵심 속성으로 소재를 꼽으며 어떤 소재든 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고유의 특색을 부여한다. 세라믹도 마찬가지. 위블로 매뉴팩처에서는 케이스와 베젤에 적용하는 고성능 세라믹을 개발했다. 세라믹은 단단하고 가벼우며 세련되기까지 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스크래치에 강하며, 변색 없이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다. 항알레르기성으로 어떤 사람이든 착용 가능하기에 이 완벽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15년 이상에 걸쳐 연구 개발을 지속한 결과 고온에서 아연을 소성해 완성할 수 있었다. 세라믹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세라믹을 다양한 컬러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다. 선명한 레드 컬러와 로열 블루를 개발해 소재의 성능뿐 아니라 위블로만의 디자인적 위상까지 높였다. 이외에도 깃털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한 탄소섬유, 18K 골드보다 더 붉은색을 띠는 킹 골드, 백금과 유사한 은백색의 금속인 팔라듐, 스테인리스강, 탄탈륨, 티타늄, 텅스텐, 지르코늄,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금속인 오스뮴, 알루미늄 등과 같은 특수 소재를 써서 근본적인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양성민**



Upmost Innovation

2010년 위블로가 설계한 최초의 무브먼트인 유니코는 기술적으로는 물론 미학적으로도 선구자로서 세상에 등장했다. 그리고 8년 후 위블로 매뉴팩처는 플라이백 기능을 갖춘 차세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며 더욱 심플해진 디자인과 놀라운 정확성을 선보였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것, 이는 바로 위블로만의 철학이다. 유니코 무브먼트와 유니코의 원동력을 담은 뉴 워치 세 가지를 소개한다.

혁신을 거듭하는 유니코 칼리버

2018년, 위블로가 최초로 설계한 유니코 칼리버 HUB1242를 대체하는 유니코 2세대 칼리버 HUB1280을 출시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5개의 독립적인 특허를 통해 매뉴팩처 팀의 독창성을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HUB1280은 무려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파워리저브, 다크 그레이 마감, 3년 보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전작의 명성을 공고히 해준 코드의 대부분을 차용했다. 또 HUB1280의 주요한 목표는 대부분의 손목에 착용 가능한 크기인 직경 42mm 케이스를 장착하는 것인데, 니옹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들은 치열한 노력 끝에 두께를 8.05mm에서 6.75mm로 줄여 매우 슬림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더욱 쉬운 조립, 모던한 구조, 발전된 정확성을 위해 5개의 특허를 추가했다. 첫 번째로 적용한 특허 기술은 와인딩을 더욱 부드럽게 구현한 것이다. 워치 와인딩은 내장된 스프링을 통해 배열에 다시 장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와인딩 스템을 회전시키면 스템을 감싸는 배열이 돌아가면서 다시 장력이 생겨난다. 와인딩 작업을 완료한 다음, 메인 스프링의 와인딩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래치 휠 클릭이라 불리는 부품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휠이 풀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톱니 하나씩 와인딩 시스템에 맞물려 있는 래치 휠 클릭은 와인딩 시 딸깍 소리를 낸다. 약간 레트로한 사운드는 유쾌한 감각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위블로 매뉴팩

처 팀은 이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를 발견했다. 이 작동은 무브먼트 내에서 순환하는 에너지인 토크를 소모하고, 마모를 일으키며,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위블로는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 가능한 톱니 프로파일일 갖춘 휠 한 쌍을 개발했다. 한쪽에서는 서로 걸착되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맞닿는다. 단방향 톱니 프로파일을 갖춘 2개의 휠은 요크 위에 장착되어 워치메이커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 배열을 풀 수 있다. 이는 특허 받은 구조이며, 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신뢰도 높고, 견고한 솔루션이 된다. 부품 하나를 제거하기 때문에 서비스 도중 유지 관리 작업이 줄어들고 작업 효율성이 높아져 워치메이커와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다. 두 번째 특허는 홈잡을 곳 없는 크로노그래프 디스플레이다. 크로노그래프는 워치 무브먼트와 연결된 컴플리케이션이며, 무브먼트의 에너지로 분과 초를 센다. 자동차 클러치와 동일하게 2개의 요소가 서로 접촉하면 기어를 변경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원리다. 그러나 워치메이킹에서 이에 해당하는 수직 클러치는 작동하는 모습이 완전히 가려진다. 단점이 있다. 클래식한 수평 클러치는 이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워치 애호가에게는 잘 알려진 두 가지 단점인 시각 시 튀는 것,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핸드의 떨림이 존재한다. 유니코는 극도로 심플한 클러치 메커니즘을 갖춘 두 가지 단점을 모두 극복해냈다.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휠의 독특한 프로파일은 위블로 매뉴팩처에서 수집가의 기대치에 발맞춰 걸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신경 써서 제작할 만큼 특별한 형태로 완성했다. 세 번째 특허는 개선된 성능을 갖춘 크로노그래프다. 유니코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2개의 클러치를 갖추었다. 첫 번째 클러치는 크로노그래프 핸드를 구동하고 두 번째 클러치는 미닛 카운터를 움직인다. 다른 크로노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유니코 또한 마찰력을 활용하며, 이는 크로노그래프가 멈추었을 때 핸즈를 잠가버리거나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되었을 때 클러치 도중 핸즈를 원래 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유니코는 크로노그래프 휠을 반대쪽 주얼로 밀어내는 세라믹 볼 베어링을 갖춘 구조를 활용해 마찰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통제한다. 위블로는 단단한 소재를 활용해 독보적인 수준으로 일관성 및 정확성을 갖춘 마찰력 토크를 완성했다. 또 위블로 워치메이커는 이제 유니코 HUB1280을 분해할 필요 없이 로터 중앙에 배치된 조정 스크루를 활용해 마찰력 토크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진동 클러치를 결합해 특허를 획득한 발명품은 크로노그래프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 다시 한번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줄어들고 밸런스에서 진폭 손실이 적어지면서 성능이 개선되어 더욱 정확도 높은 위치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어 더욱 높은 정확성을 네 번째 특허로 꼽을 수 있다. 모든 위블로 무브먼트는 인텍스 조립 시스템을 통해 정확성을 조정한다. 이 시스템은 밸런스 스프링의 활성화된 길이를 조정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길이를 더 많이 줄일수록 위치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길이를 적게 줄일수록 위치의 정확성은 낮아진다. 시행착오에 기반하는 시스템은 정교한 조정을 요하는 만큼 약간의 유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유니코 HUB1280의 특허 받은 미세 조정 시스템은 걸착 측에서만 변형 가능한 신축성 있는 구조를 활용해 톱니 스크루 시스템으로 밸런스 스프링의 활성화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고, 이는 유격이 없는 인텍스를 구동한다. 즉 새로운 HUB1280은 더욱 손쉽게 미세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집가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부품이 완전히 걸음으로 드러나도록 제작했으며, 위블로의 'H' 로고로 장식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허는 탁월한 내충격성이다. 유니코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핸즈를 올바른 위치에 고정하는 캐논 피니어 기어에 독보적으로 높은 마찰 토크를 생성할 수 있는, 특허 받은 혁신 요소의 혜택을 누리는 사상 최초의 매뉴팩처 무브먼트다. 이는 커다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간 디스플레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탁월한 역할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다크 그린 & 오렌지 세라믹 듀오

빅뱅 유니코 오렌지 세라믹과 빅뱅 유니코 다크 그린 세라믹, 이 전설적인 빅뱅 유니코 한 쌍이 아이코닉한 직경 42mm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됐다. 20년 가까이 타임피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온 견고한 소재인 세라믹으로 만든 베젤, 케이스, 케이스 백의 희소성 및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모델별 2백50피스 한정 출시한다. 3일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는 유니코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특허 받은 위블로의 원 클릭 시스템으로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강렬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및 기술 같은 디테일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의 융합은 빅뱅의 정수 그 자체이자 더욱 폭넓게 보면 위블로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은 화려하고 선명한 오렌지 컬러의 세라믹 소재로 제작했다. 오렌지 세라믹은 위블로가 최초로 발명한 만큼 위블로 매뉴팩처뿐 아니라 워치메이킹 브랜드를 통틀어 최초로 도입되는 소재다. 이 새로운 컬러의 소재는 폴리싱 처리한 케이스와 베젤, 텍스처를 살린 러버 스트랩, 스켈레톤 마감 기법을 적용한 인텍스와 핸즈, 6시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이코닉한 칼럼 휠, 60분 카운터의 중심부에 통합된 날짜창과 같이 빅뱅 유니코 신제품의 모든 표면 및 마감 기법과 완벽히 어울린다. 두 번째 버전은 보다 모험적인 카무플라주 스타일로 완성했다. 오렌지 버전과 대비되는 다크 그린 버전은 절제되고 차분한 무드가 돋보인



다. 또 그린 세라믹은 푸셔와 42mm 케이스를 보호하는 러그의 블랙 컬러와 어우러지면서 견고하고 기능적인 룩을 연출한다. 3일간의 파워리저브와 인증받은 100m 방수 기능을 갖춘 이 타임피스는 내구성을 요하는 임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칠 뿐 아니라,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주말에 스포츠를 즐길 때에도 활용하기 제격이다.

흐름을 거스르는 핑크 사파이어

컬러 사파이어는 위블로의 저명한 역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요소이며, 빅뱅 유니코는 컬러 사파이어를 선도하는 타임피스다. 사상 최초로 완전히 반투명한 라이트 핑크 컬러에 1백 피스의 적은 수량으로 한정 제작되는 이 제품은 워치메이킹의 코드를 완벽히 뛰어넘었다. 혁신적이면서도 대비되는 요소를 융합하는 위블로의 철학을 고스란히 구현한 이 타임피스는 남성 위치로는 흔치 않은 컬러를 찾는 남성 고객부터 42mm의 보다 큰 사이즈로 이루어진 테크니컬 타임피스를 선호하는 여성 고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워치 애호가, 그리고 특별한 위치와 걸음으로 드러나는 메커니즘을 사랑하는 팬 모두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또 이 타임피스에서는 눈부신 빛을 품은 유니코 HUB1280이 작동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칼럼 휠,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텅스텐 로터, 실리кон 이스케이프먼트까지 톡톡 튀는 팝 컬러를 품은 섬세하고 정교한 실루엣은 빅뱅이 늘 추구해온 철학인 현대 워치메이킹의 첨단을 이끄는 기술적이고 견고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골드를 입은 대담한 스퀘어 디자인

위블로 컬렉션에 풍성함을 더해줄 두 가지 새로운 스퀘어 밴 디자인이 등장했다. 빅뱅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타임피스는 스퀘어 디자인의 한 번이 시그니처와도 같은 직경에 해당하는 42mm 길이로 이루어졌으며, H형 스크루 6개를 갖춘 아이코닉한 베젤, 케이스를 보호하는 2개의 러그, '원 클릭' 브레이슬릿, 스켈레톤 핸즈와 인텍스를 갖추고, 최신 세대의 매뉴팩처 무브먼트인 유니코 HUB1280을 탑재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자신만



1 새로운 오토매틱 와인딩 메커니즘을 갖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적용한 2세대 유니코 HUB1280. 2 1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반투명 라이트 핑크 컬러가 특징인 42mm 사이즈의 빅뱅 유니코 핑크 사파이어. 3 30년 총경과 스크래치에도 견고함을 자랑하는 빅뱅 유니코 오렌지 세라믹과 빅뱅 유니코 다크 그린 세라믹. 4 스크래치에 강한 매직 골드 소재로 완성해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퀘어 밴 듀오.

의 매력을 선보이는 수집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퀘어 밴 유니코는 대담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기존 관습에 순응하는 보수적인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디자인은 당대의 가장 대담한 룩으로 독보적 존재감을 자랑한다. 두 가지 타임피스는 컬러를 제외한 모든 디테일이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유일한 차이점인 케이스는 마이크로 블라스트 처리한 블랙 세라믹과 매직 골드 베젤 조합 또는 위블로가 특허를 받은 스크래치에 강하고 변형되지 않는 골드 소재인 18K 매직 골드 소재로 만나볼 수 있다. 케이스와 베젤 모두 매직 골드 소재로 제작되는 버전만 2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윤지영**

Splendid Masterpiece

소재의 장인 위블로의 DNA와 유산이 담긴 사파이어, 컬러 세라믹, 킹 골드, 티타늄으로 완성한 승고한 걸작.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위블로 빅뱅 인테그레이티드 타임 오리 티타늄 블랙 새틴 마감 폴리싱 처리한 티타늄 케이스를 장착해 남성, 여성 누구나 매치하기 좋은 직경 38mm 사이즈를 완성했다. 폴리싱 처리한 블랙 다이얼과 티타늄 칼라감이 모던한 느낌을 자아내며, HUB1115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9백만엔대. 위블로 빅뱅 인테그레이티드 타임 오리 킹 골드 블루 위블로의 자랑 18K 킹 골드로 완성한 직경 38mm 케이스에 새틴 마감 처리한 블루 스텐이 다이얼을 매치해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감성을 부여했다. 동일한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약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6천9백만엔대. 위블로 빅뱅 인테그레이티드 타임 오리 블루 세라믹 세라믹 소재를 다루는 데 구저인 위블로가 내놓은 블루 세라믹 버전의 워치로 역시 직경 38mm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선보인다. 브레이슬릿까지 블루 세라믹으로 완성해 디자인적 통일감을 주었으며, HUB1115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2백만엔대.



위블로 빅뱅 유니코 핑크 사파이어
 직경 42mm의 투명하고 독특한 걸작감을 자랑하는
 핑크 사파이어 케이스와 베젤의 기능성 비형 스크루
 6개로 이이묘리한 감성을 부여했다. 오픈워크
 디자인 다이얼로 인하우스 오토메틱 유니코
 HUB12800이 구동하는 모습을 모든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빈투명 핑크 러버 스트랩으로
 디자인적 통일감을 주었다. 1백 점 한정 생산.
 1억9천만엔대.

(왼쪽부터) 위블로 빅뱅 유니코 오렌지 세라믹 워블로만이 구현할 수 있는 독특한 오렌지 색감으로 완성한 세라믹 케이스를 적용했다. 직경 42mm 사이즈로 제공하며, 오렌지 스트러치드 라인 라버 스트랩을 매치해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HUB1280 유니코 2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4천3백만원대. 위블로 빅뱅 유니코 다크 그린 세라믹 직경 42mm의 그린 세라믹 케이스로 완성했다. 마찬가지로 다크 그린 컬러의 라버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HUB1280 유니코 2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천5백만원대.



위블로 스피릿 오브 빅뱅 상블루 사파이어 두께 15.7mm, 직경 42mm의 폴리싱 처리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와 베젤로 선보인다. 화이트 투명 스무스 라버 스트랩을 적용해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HUB4700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1백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2억2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에디터 **성용민**



Spirit of Big Bang

말 그대로 빅뱅 시리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워치 애호가에게 사랑받는 스피릿 오브 빅뱅이 소재의 연금술사 위블로의 손에서 재탄생한다. 디자인적으로나 워치메이킹 기술적으로 위블로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그대로 담아낸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 컬렉션.

소재 가공에 일가견이 있는 위블로의 기술력을 또 한번 증명할 신제품,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 위블로는 이타임 피스를 막심 플레시아-뷔치(Maxime Plescia-Büchi)와 8년간 협업한 끝에 선보였다. 그는 명망 높은 타이포그래피자 타투이스트, 아티스트로 상 블루(Sang Bleu) 창립자다. 2016년부터 위블로는 상 블루와 콜라보레이션해 제품에 깊이감 있는 양각 디테일을 구현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독특한 요소를 표현하고 고유의 입체적인 구조를 정립했다. 이 입체적인 구조와 상 블루 특유의 디테일을 위블로가 선택한 최첨단 소재인 사파이어에 구현해 강렬함과 부드러움, 강인함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타투처럼 손목 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기하학적 위치를 탄생시켰다. 2016년 빅뱅을 시작으로 2023년 스피릿 오브 빅뱅까지 협업을 이어온 그가 2024년에도 존재감을 드러내 새로운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를 선보인다. 이처럼 위블로는 정교한 타임피스를 통해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탁월한 역량을 다스금 증명했다.

유사성과 차이점을 자유자재로 활용한 디자인
스피릿 오브 빅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42mm의 직경과 배럴형 디자인의 영혼을 간직한 채 색다른 미학적 마감 기

법을 선보이는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 사파이어. 커다란 사이즈와 개성 넘치는 형태임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손목에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상 블루는 직접 새기고 조각하고 비스듬하게 각도를 형성하며 각면 처리한 워치라는 디자인의 영감 또한 동일하게 유지해 육각형, 마름모, 삼각형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디테일 하나하나 새로운 형태와 볼륨감을 연출한다. 사파이어 소재를 사용한 만큼 다채로운 양각 및 깊이감이 드러나는 막심 플레시아-뷔치 특유의 디테일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무브먼트는 동일하게 스키텔론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HUB4700을 장착해 4시 30분 방향의 날짜창과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그리고 상 블루 스타일로 새롭게 디자인한 로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상 블루가 디자인한 디스크 핸즈를 통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이얼과 케이스, 베젤에까지 사파이어를 폭넓게 적용해 유기적 형태가 더욱 돋보이도록 했다. 막심 플레시아-뷔치의 다각형타투를 더해 하는 만큼 위블로는 다루기 힘든 투명한 소재인 사파



1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의 케이스를 적용한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 사파이어. 2x22x26mm 대. 2 18K 킹 골드 케이스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를 매치하고 바깥쪽 컷 다이아몬드를 볼 세팅한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 하이 주얼리의 6x22x27mm 대. 3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 하이 주얼리의 18K 화이트 골드 버전. 6x22x27mm 대.



이어를 가공하는 데 있어 다시 한 번 한계를 초월해야만 했다. 먼저 사파이어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수준의 마감 기법이 필요하다. 또 경도 10인 다이아몬드보다 불과 한 단계 낮은 9의 경도를 지닌 소재로 스크래치에 강하지만 섬세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3D 기계 가공 및 1백 시간의 작업을 거쳐 완성했으며, 타타늄을 커칭한 크라운, 푸시 버튼, 케이스 스크루, 베젤의 H형 스크루

6개, 폴딩 클랩, 그리고 무브먼트 부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투명한 디테일로 완성하기 위해 예리하면서도 톰톰한 손길을 거쳤다. 상 블루의 순수한 디테일은 투명한 사파이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각적으로나 착용감 면에서나 가볍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존재감을 자랑한다. 이 타임피스는 1백 피스 한정으로 제작된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2피스의 스피릿 오브 빅뱅 상 블루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며 시계 애호가와 컬렉터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 역시 사파이어 크리스탈 커버로 각진 면과 같은 디자인적 DNA를 유지하고 케이스는 18K 화이트 골드 또는 18K 킹 골드를 제작해 하이 주얼리라는 이름에 걸맞은 화려한 면모를 강조했다. 케이스에는 97개의 바켓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에는 52개의 바켓 컷 다이아몬드, 그리고 다이얼에는 43개의 바켓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위엄 있는 자태를 선보인다. 무브먼트는 역시 HUB4700 셀프 와인딩 스키텔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상 블루와 동일한 사양을 제공하며 위블로의 상징이자 자랑인 매끈한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막심 플레시아-뷔치는 다음과 같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콜라보레이션에서 한 번도 활용해 본 적 없는 위블로의 시그너처 소재인 사파이어 위에 위블로와 상 블루의 융합이라는 DNA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사파이어는 그 자체로도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활용되는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이자 작품에 마치 신비로운 존재가 깃든 듯한 미래지향적인 매력과 건축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힙니다. 제가 모든 프로젝트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결과물과 정확히 일치하죠." **에디터 성정민**



New Novelty

모던하고 파워풀한 면모가 엿보이는 위블로의 클래식 퓨전 컬렉션. 기존의 45mm, 42mm, 38mm, 33mm 사이즈에서 한층 더 작아진 29mm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다. 손목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스몰 다이얼의 매력을 발산한다.

위블로가 1980년 당시 워치메이킹업계의 관습을 뒤집은 마스터피스 워치, 클래식 퓨전에 다시 한번 주목한다.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이 돋보이는 정교한 골드 케이스와 심플한 러버 스트랩의 조화는 당시로서는 쉽사리 떠올릴 수 없었던 디자인으로 워치메이킹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새로운 위치를 갈망했던 워치 애호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시계는 대담함을 원동력으로 삼아 선구적인 비전을 지향하며 쉽 없이 추진력을 발휘해 왔다. 클래식 퓨전 오리지널은 시대를 초월하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헬기왕성하면서도 성숙한 매력을 표현한다. 러버 스트랩에서는 카를로 크로코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으며, 폴리싱 처리한 블랙 레커 다이얼은 각진 핸즈를 갖춰 오로지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순수한 미학을 선사한다. 여기에 위블로의 상징과도 같은 시그너처 디테일을 갖추고 있다. 첫눈에는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해 보이는 로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모던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해왔다. 클래식 퓨전 오리지널은 옐로 골드, 티타늄, 세라믹 소재로 선보인다. 제품 특유의 스크루 6개는 베젤 위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자아내며, 사파이어 케

이스 백을 통해 내부의 기계식 부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리지널 시계에만 존재하던 위블로만의 아이코닉한 디테일은 현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승화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클래식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다. 더욱 찬란한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듯한 케이스 디자인이 돋보인다. 지금까지 케이스의 직경은 45mm, 42mm, 38mm, 33mm 사이즈로 선보였던 클래식 퓨전이 워치스 & 원터스 2024에서 한층 작아진 사이즈인 29mm로 새롭게 출시됐다. 특히 기존 옐로 골드에서 위블로만의 특색이 담긴 소재인 스크래치에 강한 18K 킹 골드를 사용한 케이스 디테일이 돋보인다. 그중 클래식 퓨전 킹 골드 파베는 케이스에 1백2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기존의 스포티한 무드를 우아함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베젤에도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멋을 배가했다. 2년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HUB2915 워즈 무브먼트로 구동하고 5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윤자경**



1 29mm, 33mm, 38mm 사이즈의 클래식 퓨전 킹 골드 파베 컬렉션. **2**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을 장착한 클래식 퓨전 킹 골드 레이싱 그레이 다이아몬드. 2천5백만원 대. **3** 티타늄 소재의 베젤 위에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 퓨전 티타늄 그린 다이아몬드. 1천2백만원 대. **4** 블랙 다이얼의 시트링과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클래식 퓨전 티타늄 파베. 2천5백만원 대.